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10월 7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행21장 15-18절

설교제목 : “야고보에게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줍니다.(15절)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100km정도의 먼 거리이기에 하루 만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행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과 함께 가이사라의 몇 제자들과 나손이란 인물이 동행하게 됩니다.(16절) 나손은 예루살렘에서 바울 일행이 머물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동행한 사람인데 상당한 재력가였다고 보여줍니다. 나손은 누가가 ‘오랜 제자’라고 표현했듯이 교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형성되기 시작할 무렵부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제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을 기쁘게 호의적인 환영을 해주었습니다.(17절) 바울 일행은 그 다음날 야고보에게로 들어갔습니다.(18절) 18절에서 ‘들어가니’라고 번역된 ‘에이세에이’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방문을 뜻합니다. 그 특별한 목적이란, 제3차 선교의 성과를 보고하고,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은 이방교회의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란 표현을 통해서, 그 당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야고보는 요셉의 아들이자 예수의 바로 밑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참고 마태복음 13:55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요7:5)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경험하면서 변화된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수장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격동기에 교회를 든든히 이끌었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야 야고보의 리더십이 어떠한지 알 수 없지만, 야고보의 가르침을 통해 그가 추구했던 리더십이 무엇이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약2:17)’라고 가르쳤던 리더였습니다.(참고 마7:21) 결국 야고보의 가르침은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기독교의 리더십은 삶의 방식으로써의 리더십입니다. 히브리서 13:7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내용을 보기 이전에 그 사람의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끝까지 맺고 살았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열매를 보고, 그 믿음을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얼마나 옳은 말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진짜로 옳은 삶을 사느냐에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강조했던 가르침이며 야고보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더불어서, 18절에 보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감독과 장로의 기능적 구별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와 같은 감독과 70명으로 이루어진 장로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장로회는 그 당시 유대교의 산헤드린 공의회와 오늘날 당회와 같은 기관으로 교회의 공식적인 일을 결정하는 결정기관이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교훈은 기독교의 리더십은 개인중심의 리더십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방식과 사역방식이 공동체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공동체로 일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역시 공동체로 존재하고, 공동체로 사역합니다. 결국 교회의 리더십은 공동체적 리더십입니다. 공동체적 리더십이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 지체로서의 리더십입

니다. 따라서, 공동체적인 리더십을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째, 나의 장점과 은사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둘째, 나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은사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교회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구성된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만의 고유한 강점과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고, 내게 없는 것은 다른 지체의 협력을 통해서 채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경쟁자나 견제할 자가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동역자이고, 나를 도와주고, 내가 도와야 하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리더와 팔로워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끌고, 서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리더십을 생각할 때, 가장 변질된 단어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리더십은 항상 순종과 복종을 강조합니다.(히브리서13:17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13:17에서 ‘순종하라’는 헬라어 동사는 ‘페이도’입니다. ‘페이도’는 ‘설득하다’는 의미를 가진 현재 수동태 명령형 동사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스스로 설득당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순종 즉 페이도의 의미는 긴 대화 끝에, 그 사람과 마음에 있는 대화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순종하도록 설득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무조건 순종이 아닙니다. 충분한 대화 끝에 스스로 확신케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소통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종하다’는 번역된 헬라어가 ‘휘페이코’는 ‘양보하다’, ‘내어주다’는 뜻입니다. 싸움 끝에 싸우다가 갈등하다가 한쪽이 양보하는 것이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본인이 결정하여 선택하여 내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적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직위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이해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양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리더는 자신을 드러내 보이거나, 말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격과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리더는 독불장군처럼, 혼자 일을 잘 해내는 자가 아니라, 지체들과 함께 서로 협력하며 일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리더는 끝까지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성경적 리더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본문의 야고보가 어떤 인물인지 이야기 해봅시다.
- 2)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의 리더십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초대교회의 리더십이 어떠 했는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점과 은사는 무엇인지 반면에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